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ARCHITECTURE OF HEAVEN

가제 : 천국의 설계

저자 : Holly Cave

출판사: Quercus

발행일: 2018년 봄

분량 : 90,000 words

장르 : 소설/ SF



* **SF** 소설 「**The Generation**」으로 열광적인 팬을 만들어낸 과학 전문 작가의 신작

*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사후세계, 죽은 뒤 영혼이 머물 천국을 직접 설계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과 사람이 만든 천국의 실체

세상과 하직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추억한다. 그 좋은 기억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한 공간에 정리할 수 있고 죽어서 그 공간에 머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닐까? 런던 과학박물관에서 근무하며 과학 전문 작가로 활동해온 작가는 이 소설에서 그 아이디어를 구현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의 소중한 기억을 기록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천국 설계자 이소벨과 그녀를 찾아온 환자 자력 사이에서 피어난 뜻밖의 사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살인 사건과 감추어진 비밀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천국 설계자’인 이소벨은 런던의 한 클리닉에서 매일 손님을 맞이한다. 의학적인 기술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환자들은 개발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 놀라운 사후세계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클리닉을 찾는다. 이소벨과 같은 설계자와 한 번에 두 시간씩, 5회 내지 8회 정도 상담을 하면서 지나온 삶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장소, 인연, 경험을 세세하게 털어놓으면, 설계자는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마치 집 안에 가구를 배치하듯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로 만들어낸다. 단편적인 기억 사이에 문을 달아주는 것과도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생물학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클리닉에 소속된 신경 전문의들이 고객의 뇌를 스캔하여 천국 설계자가 만든 이야기 혹은 공간이 뇌 어느 부위에 위치해 있는지 상세한 지도를 작성한다. 지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설계자는 고객과 함께 완성된 이야기와 공간을 영상으로

점검하면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을 찾고, 그렇게 사전 작업은 마무리된다. 고객이 실제로 숨을 거두면, 클리닉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죽은 이의 신경과 연결시키고 죽은 사람의 정신은 영원히 자신이 만든 천국의 공간 속에서 떠 다니게 된다. 죽은 뒤에 자신이 어떤 생각과 기억 속에서 살아갈지 스스로 정해놓을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이소벨은 최대한 꼼꼼하게 고객의 기억을 듣고 이 인공적인 사후세계를 만들어주는 일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다. 희귀한 뇌종양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렉이라는 남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서른 여섯, 자신보다 겨우 다섯 살 많은 사람의 생명이 곧 꺼져야만 하고 그 사람의 사후세계를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소벨에게는 왠지 불합리한 일로 느껴졌다. 흰철한 키에 잘생긴 외모, 따뜻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그와 첫 상담을 하면서 이소벨은 문득 자신이 고객이고 자렉이 천국 설계자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만큼 그는 이소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속내를 드러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결국 이소벨은 강하게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기 환자였다 유부남인 자렉과 사랑에 위태로운 빠지고 만다. 그러나 불같이 타오른 사랑도 이미 예정된 자렉의 죽음으로 그리 길게 가지는 못했다. 이소벨은 자신이 만들어준 천국에 그가 평화롭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그런데 자렉이 숨을 거둔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자렉의 아내 사라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것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죽은 자렉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그가 범인이 아니라 확신한 이소벨은 그의 결백을 자신이 직접 입증하기로 결심한다. 사건 조사에 뛰어드는 이소벨은 그러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렉이 머물고 있는 천국으로 직접 가서, 그의 의식에 남아 있는 숨겨진 기억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죽은 연인의 결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소벨의 믿음마저 뒤흔드는 사실들이 의심을 증폭시킨다. 급기야 이소벨에게도 의심의 눈초리가 던져지고, 이소벨은 자신의 결백까지 입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다. 그리고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천국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이소벨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 과연 자렉의 진실을, 그리고 최신 기술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사후세계의 실체를 벗겨낼 수 있을까?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이소벨의 혼란스러운 고투가 이어진다.

<저자 소개>

홀리 케이브(Holly Cave)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동 대학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 런던 과학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과학 저술과 겸 소설가로 일하기 시작했다. 2015년 2월 자가 출판한 SF 소설 『The Generation』은 팬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제목 : SMOKE OVER MALIBU

가제 : 말리부에 피어난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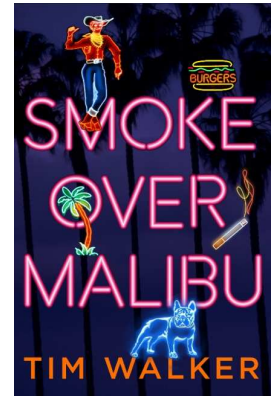
저자 : Tim Walker

출판사: William Heinemann

발행일: 2017년 1월 2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코믹 소설



* **LA**의 오래된 집들을 돌아다니며 골동품을 발굴하고 판매하는 두 남자, 어느 날 우연히 얻은 만화책 때문에 시작된 음모와 미스터리를 그린 코미디 스릴러

* 범죄 소설의 대가, 레이먼드 찬들러와 닉 혼비의 글이 결합된 듯한 독특한 문체

한때 영국에서 극작가로 일하면서 거의 '성공할 뻔'했던 럭키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새로운 황금기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스타워즈나 온갓 슈퍼히어로가 영화계를 휩쓸기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이야기를 쓸 수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전설처럼 오래된 일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럭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사는 과거를 절대 놓지 않았다. 그가 과거를 현재로 만들기 위해 택한 새로운 직업은 바로 골동품 판매상.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이런저런 물건을 모아온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을 싹 치우고 고쳐서 팔기 전에 럭키와 동료 라울이 방문한다. 집 안 곳곳에 남겨진 과거의 흔적들, 50년도 더 된 도자기며 그림들은 물론 운 좋을 때는 100년도 더 된 귀한 물건들까지 찾을 수 있다. 럭키와 라울은 다른 사람들 눈에 한낱 고물이나 쥐도 안 갖는 쓰레기나 다름 없는 물건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품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서 사들인 후, 자신들처럼 과거의 소중함을 간직하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낮에는 골동품 사냥으로, 밤에는 술 한잔 걸치고 거나하게 취해 화려했던 옛 시절을 회상하며 살아가던 럭키에게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진다. 오래된 만화책 한 권에서 시작된 혼란은 럭키와 라울을 끝 없는 소용돌이로 몰고 간다.

그 모든 사태는 캐니언 근처, 네비게이션의 도움 없이는 찾아갈 수도 없는 산중에 끄꽂 숨겨진 집에서 시작됐다. 새벽부터 물건 가지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럭키가 아침 여덟 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그 집에 도착하니 자동차 엔진 소리에 놀란 사슴들이 황급히 달아나는 풍경이 펼쳐질 정도로 외딴 곳에 위치한 집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채 2년을 더 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일흔네 살의 집주인은 럭키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꽤 예술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게으름 피우느라 항상 늦는 라울이 오기 전, 집 안 곳곳을 둘러보던 럭키는 죽은 부부의 고급스러운 취향을 보여주는 물건들을 발견하고 감탄한다. 사실 할리우드라는 지역의 특성상 한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 뜨내기들이 훨씬 더 많으니 골동품 판매상으로서의 황무지나 다름 없는 곳이지만, 이렇게 가끔 제대로 된 건수가 잡히면 그

야말로 보물창고처럼 값 나가는 물건들이 우수수 발견된다. 럭키는 평소대로 구획을 나누어 주방부터 찬찬히 둘러보다가, 부부가 기념품을 모아둔 작은 진열장에서 놀라운 물건을 발견한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코끼리, ‘덤보’가 장식으로 들어간 아주 독특한 모양의 쿠키 담는 병이었다. 뚜껑에 살짝 찍힌 자국이 있고, 병 바닥에 실금이 보이긴 하지만 제작사의 이름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족히 70년은 더 된 물건이었다. 신이 나서 이 병을 사겠다고 말할 때만 해도, 설마 이 물건 때문에 싸움까지 벌어질 줄은 럭키도 상상하지 못했다.

럭키와 라울이 소속된 골동품 판매업체의 나이든 상사가 ‘덤보’ 쿠키 병을 훔치려다 얻어 터지는 일이 발생하고, 뒤늦게 이 집에서 라울이 찾아낸 오래된 만화책까지 엉키면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이 혼란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예술과 상업이 미묘한 경계에 놓인 할리우드에서 귀찮은 일은 딱 질색인 두 남자가 무너져가는 사업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면서 시작되는 좌충우돌 모험에는 미스터리와 배꼽 잡는 코미디, 사뭇 똑똑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약간 덜 떨어진 두 바보 친구의 고난과 스릴러가 이리저리 뒤엉켜 있다. 럭키가 그토록 이를 갈며 분해하는 슈퍼히어로 블록버스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액션도 펼쳐진다.

<저자 소개>

팀 워커(Tim Walker)는 서리에서 태어나 「인디펜던스」 특파원으로 미국 LA에서 일했다. 지금은 런던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EVERY HEART A DOORWAY

가제 : 마음속 모두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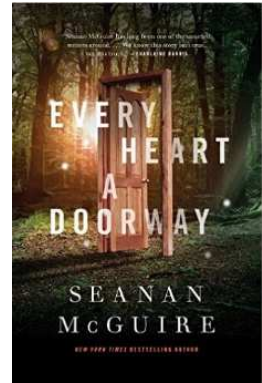
저자 : Seanan McGuire

출판사: Tor.com

발행일: 2016년 4월 5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소설/ 판타지



* “우리는 이 소설이 허구인 걸 알고 읽지만, 사실로 느끼게 된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ookie Stackhouse*」 시리즈 작가 샬레인 해리스

* “상실과 갈망, 상처 입은 아이들에 관한 놀라운 동화,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작가의 능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소설” - 「*London Falling*」, 「*Witches of Lychford*」의 작가 폴 코넬

엘레노어 웨스트는 아주 특별한 기숙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학교에 다닐 학생들은 면접을 보지 않는다. ‘다루기 힘든 아이들을 위한 집’이라는 명성답게, 자신의 아이가, 동생이, 손주가, 조카를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다는 절망감에 괴로워하는 어른들이 엘레노어와 면접을 본다. 그저 평범한 아이였다는 이들의 골칫덩어리들은 어떤 일인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학교에도 가려고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해대고, 자꾸만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어른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레노어의 학교를 찾아온다. 엘레노어는 아이가 기억을 잃고 알 수 없는 환상에 빠져 살고 있다는 이들의 비통한 이야기에 잠자코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득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녀들이기에, 원래 소녀에서 여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다고 설득하고, 가끔 남자아이의 보호자가 찾아오면 그저 심한 착각에 빠져 있으니 이 학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설득한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들에게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위로한다. 하지만 이 모든 설명은 다 거짓말이다. 엘레노어가 이 학교를 만든 이유는 어른들에게 한 말처럼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지만, 그 방식은 전혀 다르다.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 사실임을 다 이해한다고 위로하고 똑같이 오해 받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침대 밑에 드리워진 시커먼 그림자, 옷장 뒤 좁은 틈, 정원에서 우연히 발견한 토끼 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옛날 우물, 숲 속 깊은 곳에 있는 연못... 모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그 장소에 있던 아이들은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에 들어선다.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꿈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또 다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현실로 끌려 나온다. 하지만 이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아이들은 완전히 바뀌어 있다. 생각도, 기억도, 모두 바뀐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되돌아온 그 순간부터 아

이들은 다시 환상의 세계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 현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족쇄처럼, 감옥처럼 갑갑하기만 할 뿐이다. 이런 아이들의 발버둥과 고통을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이해할 리가 없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뿐, 이들이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 엘레노어 웨스트만이 이 아이들의 일을 믿고, 이해한다. 그녀 자신도 어릴 적, 또 다른 세계를 넘나든 여행자였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이끌려 엘레노어의 기숙학교로 온 아이들은 자신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마침내 그 답답한 심정을 이해 받고, 인정 받으며 살아간다. 엘레노어는 어떻게든 새로운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아이들에게 현실에 적응하며 사는 법을 알려준다.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때, 싫어도 정신병원에 끌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원만하게 지내는 기술을 익혀야 할 필요성을 아이들에게 설득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죽은 자들의 전당’이라 불리는 세상에 다녀온 낸시도 엘레노어의 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왔다. 자신처럼 비밀의 문을 발견한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각자 경험한 세상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사실에 놀란 것도 잠시, 낸시가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평화롭던 학교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잔혹한 연쇄 살인마가 나타나 학생들과, 이들에게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된 학교를 무너뜨리려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각자가 경험한 환상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궁리하던 아이들은 일단 그 계획을 접고, 학교를 구하기 위한 힘을 모으기로 결심한다. 살인마가 숨통을 끊어놓은 희생자마다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낸시는 단어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룸메이트 수미, 유골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쌍둥이 친구 잭과 질 등 하나 같이 독특한 친구들과 함께 그 비밀을 풀어 나간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자란 아이들도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현실을 원치 않는 이유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인 척’ 하지 않아도 때문이다. 착한 척, 공부가 재미 있는 척, 남자다운 척, 여자다운 척 하지 않고 타고난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말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보는 존재가 없다. 작가가 섬세하게 묘사한 환상의 세상과 아이들이 느끼는 갑갑함은 큰 공감을 자아내고, 독특한 설정은 책이 끝날 때까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저자 소개>

새넌 맥과이어(Seanán McGuire)는 『October Daye』 시리즈와 『InCryptid』 시리즈를 비롯해 『Mira Grant』 등을 쓴 작가로 2010년 존 W. 캠벨 최우수 신인작가상(John W Campbell Award for Best New Writer)을 수상했다.

제목 : A SMALL REVOLUTION

가제 : 작은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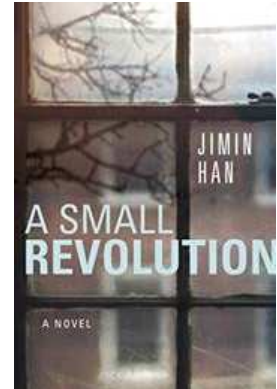
저자 : Jimin Han

출판사: Little A

발행일: 207 페이지

분량 : 2017년 5월 1일

장르 : 소설/ 스릴러



- * “독자를 테러가 일어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인공의 과거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한다. 착한 소녀가 어쩌다 이 잔혹한 현장에 오게 되었나? 과거의 사고가 어쩌다 인질극과 살인으로 이어졌나?” – 「*When She was Gone*」의 작가 그웬돌린 그로스
- * “대학 캠퍼스에 침입한 총기 인질극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과거 한국에서 벌어진, 잊혀지지 않은 뒷이야기로 이어진다. 주인공은 그 두 세상, 과거와 현재 사이를 강제로 줄타기하듯 오가야만 한다.” – 「*Lost Dog*」의 작가 앨런 러셀

펜실베이니아 웨스턴 칼리지의 기숙사 방에서 창 밖을 내다보던 유나는 이른 아침부터 학교 잔디밭을 뛰어가는 여자를 목격한다. 그 뒤를 따라 쫓는 남자가 보이고, 그는 뛰다가 넘어진 여자를 일으켜 세우고 등을 밀며 유나가 있는 건물 쪽으로 다가온다. 남자의 얼굴이 이쪽을 향하자, 유나는 그가 로이드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한국에 살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 한때 유나가 사랑했던 사람과 가장 친했던 친구인 로이드가 분명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등을 떠미는 사람도 유나의 친구이자 다른 기숙사 건물에 살고 있는 한국인 친구 대유했고, 로이드는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

유나가 911에 전화를 걸어 미처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대유했가 유나의 방문에 나타났다. 유나가 물러서는 사이, 로이드는 방 안으로 들어서고 무슨 일인가 싶어 복도로 나온 옆방 친구 헤더까지 로이드에게 강제로 이끌려 방으로 들어온다. 그 옆에서 헤더를 끌어 내려던 파에도 피할 수 없었다. 그렇게 네 명의 여학생이, 유나의 방 안에 갇혀버렸다. 로이드는 방문을 달아버리고, 서둘러 달려온 기숙사 책임자가 문을 열라고 두드리자 꺼지라고, 당장 꺼지지 않으면 다 썩 죽여버린다고 포효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허공에 대고 총까지 쏘다. 대체 로이드가 여기서 왜 이러는 걸까? 유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로이드가 맞는지, 어떻게 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 기숙사 방까지 쳐들어올 수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유나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떠 다니기 시작했다.

말문이 막혀 한 마디도 못하던 유나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로이드에게 말을 건넨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알 수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아직 살아 있어. 내가 증거를 찾았다고. 너도 부정할 수 없을 걸. 이제 인정해야 돼.” 함께 인질이 된 친구들의 눈이 금세 금금증으로 가득해지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다.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냐고, 이 친구들을 다 내보내고 둘이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자고 해도 로이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나 너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 난 널 사랑했어.” 이것도 사랑인가. 유나와 오래 전 세상을 떠난 대성, 그리고 로이드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억 저 편에서 점점이 떠오르는 사이, 로이드는 대유를 시켜 주머니에 가지고 온 테이프로 인질들을 손발을 묶는다. 그는 유나에 대한 분노로 몸을 떨었다. 분명히 기회를 줬건만 유나가 거짓말을 하고 그 기회를 날렸다고, 자신이 이런 짓까지 하게 된 건 다 유나 때문이라고 이를 갈았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름다운 가을날 아침, 총을 들고 여학생 기숙사로 쳐들어와 평화로운 캠퍼스를 발각 뒤집어놓은 인질범은 방아쇠에서 한시도 손가락을 떼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분노로 벌벌 떠다. 유나는 한때 친구였던 그가 엄청난 절망에 빠져 있다는 걸 읽을 수 있다. 그는 유나에게 평생 다시 없을 사랑이던,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대성이 한국에서 이상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그가 총부리를 겨누고 선 좁은 방 안에서, 유나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엄마를 두들겨 패던 아버지, 조용하던 마을에 찾아온 정치적 혼란과 그 와중에 만난 대성과의 깊은 사랑, 끝을 알 수 없었던 젊은이들의 목숨을 건 시위와 정부의 무자비한 진압, 그렇게 폭력에 노출된 채 살아야 했던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유나를 괴롭히고, 대성이 사라진 그 비극적인 날 벌어진 일들도 다시 떠올려야만 한다.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몸바쳐 싸우던 젊은이들이 겪은 비극적인 일들과 불행한 가정사,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절묘하게 엮어 두려움과 갈망, 희망을 찾기 위한 몸부림을 독특하게 그려낸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한지민(Jimin Han)은 코넬 대학교를 졸업하고 새라 로렌스 컬리지에서 예술석사를 취득했다. NPR의 「Weekend America」, 「Entropy」, 「Rumpus」, 「HTMLGiant」, 「The Good Men Project」, 「Kartika Review」 등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현재는 동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NON- FICTION

제목 : BREAKFAST IS A DANGEROUS MEAL

가제 : 위험한 끼니, 아침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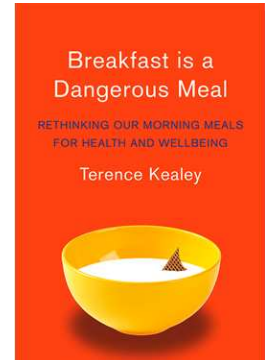
저자 : Terence Kealey

출판사: Fourth Estate

발행일: 2016년 12월 29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건강



*** 제2형 당뇨 진단을 받은 임상생물학 교수가 낱알이 밝히는 아침식사에 관한 오해와 진실**

*** 아침밥을 걸러야 오히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건강서**

“아침밥은 왕처럼 먹고, 저녁밥은 거지처럼 먹어라.”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아침밥의 중요성을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오전에 공부나 일을 할 때 집중력이 향상되고,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아침식사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는 간간히 신문기사에 등장하지만 ‘안 먹어도 된다’는 기사는 찾기 힘들다. 오랫동안 임상생물학자로 일해온 이 책의 저자는, 제2형 당뇨라는 진단을 받고 아침식사에 대해 전혀 다른 확신을 품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으면, 혈당이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아 하루 종일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데, 오히려 해서 아침을 굶으면 음식을 먹어도 하루 내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저자는 당뇨와 아침식사의 관계에 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직접 그 관계를 조사한 결과,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침식사는 하루 세 끼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임에 틀림없지만, 그 의미는 반드시 ‘먹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굶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은 당연시되는데,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나 의학적인 근거로 그 말이 확실하게 뒷받침된 적은 없다는 사실, 사람들은 아침을 잘 챙겨 먹으면 남은 하루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불편한 진실을 저자는 이 책에서 낱알이 고발한다. 특히 당뇨 환자는 물론 알츠하이머,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 아침밥을 반드시 걸러야 하는 특수한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병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체중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등 아침을 먹는 것보다 안 먹을 때 얻을 수 있는 뜻밖의 이점이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사실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탄수화물의 양은 줄이되 채소와 건강한 지방의 섭취량을 늘리는 식단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간헐적인 단식’이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현대인은 섭취하는 열량에 비해 운동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굶어서 소화기관을 좀 쉬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학계도 대체로 공감하는 추세다. 저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날 섭취한 음식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소화하고 대사가 진정된 상태에서 맨 처음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 그 영향이 왜 기존의 생각과 달리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주고 하루의 균형을 깨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밝힌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식도 건강한 삶을 위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서다.

<목차>

- 1부. 나의 이야기, 에피소드 1
- 2부. 아침식사를 옹호하는 미심쩍은 이야기들
- 3부. 아침식사에 관한 오해
- 4부. 아침식사의 역설
- 5부. 아침식사 전쟁
- 6부. 오해를 일으킨 실험들
- 7부. 아침식사가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
- 8부. 최악의 배신자, 인슐린
- 9부. 아침밥 건너 뛰기: 개인적인 사연
- 10부. 인슐린이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
- 11부.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한다면, 이것을 먹어라

<저자 소개>

테렌스 킬리(Terence Kealey)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임상 생화학 박사를 취득하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버킹엄 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후 현재는 미국 카토 연구소에서 식품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Times」, 「Guardian」, 「Independent」에 최신 과학연구와 과학 정책, 고등교육에 관한 글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

제목 : MY DIGITAL TRAVELS FOR SENIORS

가제 : 나이든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여행 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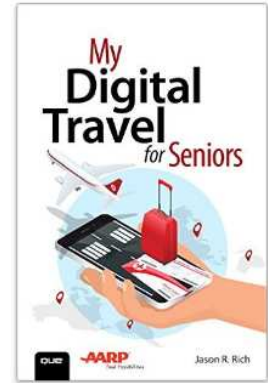
저자 : Jason R. Rich

출판사: Pearson Education USA

발행일: 2016년 12월 9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취미/여행



***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여행 계획부터 예약, 일정관리까지 편리하게 관리하고 여행 비용도 절약하도록 도와주는 최신기술 설명서**

*** 노인의 시각에 맞춰 상세한 예시와 단계별 설명, 큼직한 활자체로 읽기 쉽게 구성된 정보서**

여행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모르던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 내면이 성장하고, 행복감이 커지는 효과는 물론 함께 하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 여행이다. 주말에 잠깐 바람을 쐬고 오는 여행부터 멀리 사는 지인을 만나러 오는 여행, 또는 업무나 육아, 질병 치료, 스포츠, 결혼식이나 장례식, 입학식, 졸업식과 같은 이유로 멀리 다녀오는 것도 모두 여행에 포함된다. 현재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최신 기술은 여행을 보다 수월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굳이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아끼게 해주는 기특한 장점도 따라온다. 게다가 다양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여행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의 폭이 확연히 달라지고,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여행상품, 관련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폭도 좌우된다. 두꺼운 여행 책과 펼치기 힘든 종이 지도를 휴대하지 않아도 전자기기로 지도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찾아가고, 지금 서 있는 곳 주변에 괜찮은 음식점이나 구경할 만한 장소에 관한 정보를 얻고, 현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말을 번역해주고, 심지어 화장실 위치까지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하고 편리한 기술도 최신 기기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는 것이다. 노인들도 디지털 기술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서를 써온 저자는 이 책에서 여행에 초점을 맞추고,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로 여행을 보다 쉽고 즐거운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팁을 설명한다. 특히나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여행 계획과 예약 과정에서 괜히 실수하면 어쩌나, 두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해 저자는 최신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털어버리고 간단한 기기 활용법과 정보 검색 법을 익혀 시간과 돈, 두 가지를 모두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책은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미국 은퇴자협회 등 특정 단체 소속인 경우 인터넷 여행 예약으로 할인 받는 법, 가장 인기 있는 예약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아 예약하는 법, 여행을 계획한 일자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검색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하는 법, 렌터카를 포함하여 철도, 버스 등 여행지에서 이동할 때 활용할 교통수단을 찾는 법과 함께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을 상세히 비교하고, 특히 노인들이 패키지 여행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또 노년층에 인기 있는 크루즈 여행을 각자가 생각하는 비용에 맞게 예약하고 할인 받는 법, 해외에 나갔을 때 인터넷과 전화를 요금 폭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려면 젊은 사람이 도와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조금 느리고 어설프더라도 얼마든지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한층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알찬 정보서다.

<목차>

- 1장. 최신 기술로 여행 계획하기
- 2장. 여행 정보 검색
- 3장. 몇 가지 인기 있는 여행 도우미
- 4장. 여행 관련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활용하기
- 5장. 저렴한 항공권 예약하기
- 6장. 도로교통편 알아보기
- 7장. 숙박 예약하기
- 8장. 크루즈 여행 예약하기
- 9장. 추가경비 없는 패키지 여행과 휴일 패키지 상품
- 10장. 여행지에서 휴대전화 앱 활용하기
- 11장. 특정 단체를 위한 온라인 여행상품 할인 안내
- 12장. 여행자 보험 상품 검색하고 가입하기
- 13장. 여행 일정 관리 서비스
- 14장. 여행하는 동안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하나로 연결하기
- 15장. 여행 기록, 여행경험의 공유

<저자 소개>

제이슨 R. 리치(Jason R. Rich)는 저널리스트 겸 사진작가, 저술가로 활동하며 전 세계를 열심히 여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와 잡지, 온라인 신문 등에 사진자료를 제공해 왔다. 저서로는 『My Digital Photography for Seniors』, 『My Digital Entertainment for Seniors』, 『iPad and iPhone Tips and Tricks』 등이 있다.

제목 : THE NEW AGE OF AGEING

가제 : 노화의 새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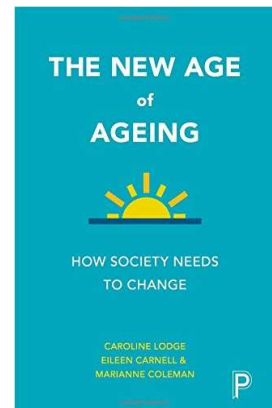
저자 : Caroline Lodge, Eileen Carrelle, Marianne Coleman

출판사: Policy Press

발행일: 2016년 9월 7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사회



*** “생애 후반기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노화에 관한 대중의 지배적인 오해를 부수는 책” – 셰필드 대학교 교수 앨런 워커**

*** “노화와 함께 개인, 정치, 직업적인 면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분석한다. 정책과 현실에 다양한 남녀 노년층의 생각을 잘 엮어서 제공한다.” – UCL 교육연구소, 미리암 데이비드**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다소 이상하고 부정적인 존재가 된다.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중한 일원이기보다는 부담 혹은 짐이 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왜 이런 인식이 당연한 듯이 팽배할까? 실제로 노인들은 사회에 숙제만 던져주는 골칫덩어리일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온 세 명의 저자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서 전혀 다른 비전을 제시한다. 나이가 드는 과정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쏜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것이 노화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시기가 노년기라고 설명한다.

‘백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화를 과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아직도 사회는 해묵은 인식에 갇혀 있다. 나이가 드는 건 곧 정신적, 신체적으로 기능이 퇴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늙으면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들 생각한다. 노인들 자신이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할 경우 그렇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편이 낫다고들 이야기하기도 한다. 세 저자는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사회 정책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가는 시대와 달리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의 변화와 점점 깊어지는 잘못된 인식은 늙어가는 노인들은 물론, 언젠가는 반드시 노인이 될 사회 구성원 전체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왜 이런 격차가 발생했을까? 노인 인구가 얼마나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낳고 있는지 그 변화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제대로 된 분석 없이 그저 소비와 생산성만 강조하는 사회 흐름대로 노인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만 조장할 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 팽배하니 제대로 늙을 준비를 하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연적인 흐름을 거스르려는, 즉 ‘어떻게든 늙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시작되고 이는 또 각종 사회 문제를 낳는다. 이 책은 50세부터 9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50명의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획득한 노화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전달하면서 노년기에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회는 이 변화에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한다.

<목차>

1. 노화의 새 시대: 사회가 변해야 한다.
2. 계속된다
3. 사람을 늙게 만드는 사회
4. 폭탄, 지진이 되어버린 노화: 노화의 경제학
5.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된 노인 소비자
- 6, 더 오래 함께 일합시다
7. 언론매체에서 배제되다
8. 감추기
9. 어디든 갈 곳은 있다고!
10. 무슨 상관?
11. 어두운 이면
12. 가장 좋은 부분
13. 다 같이 현명해지는 법
14. 저기요, 저 아직 여기 있어요
15. 미래를 향해

<저자 소개>

캐롤라인 로지(Caroline Lodge)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면서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에일린 카넬(Eileen Carnell)은 작가 겸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성인과 청년의 예술 교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마리앤 콜먼(Marianne Coleman)은 은퇴 이후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왔다. 성차별 문제, 리더십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제목: CHUTZPAH & CHUTZPAH

: Saatchi & Saatchi- The Insider's Stories

가제: 당돌하게, 뻔뻔하게 – 내부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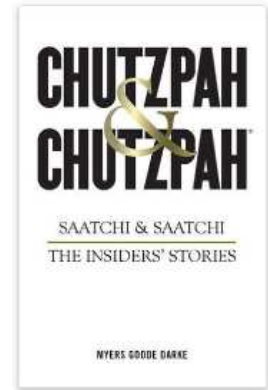
저자: Richard Myers, Simon Goode and Nick Darke

출판사: Michael O'Mara

발행일: 2017년 2월 2일

분량: 208 페이지

장르: 경제·경영



***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광고회사, 사치 앤 사치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실제 구성원으로 일한 사람들이 전하는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목격담**

*** 50년 넘게 거대한 광고회사로 키워온 두 형제 경영인의 독특하고 대범한 영업 전략과 재능**

1970년, 이라크 출신의 사업가 찰스 사치와 동생 모리스 사치가 설립한 사치 앤 사치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대담한 모토를 걸고 광고계의 거물로 자리 잡았다. 도요타 자동차, 영국 항공, 니베아 등 대형 기업의 광고를 전담하고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여 ‘광고회사’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레 떠오르는 이름으로 발전했다. 1994년과 1995년에 두 형제는 차례로 자신들의 손으로 설립하고 키워온 회사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당돌함 혹은 뻔뻔함 정도로 대담한 이들의 사업 운영 방식은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 모두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사업 총괄로, 디자이너로 사치 앤 사치에서 각자 30여 년을 근무한 세 명의 저자는 이 특별한 회사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신들을 비롯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200명 넘는 사람들이 직접 전한 이야기를 종합하여,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치 형제가 어떻게 막대한 성공을 일굴 수 있었는지 그 독특한 사업 방식을 생생하게 전한다.

런던에서 작은 광고회사로 문을 연 사치 앤 사치는 2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세계적인 광고회사로 성장했다. 하나같이 별로 겁이 없고 독창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괴짜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던 사치 앤 사치에는 불손함과 탁월함, 재능과 벌컥 쏟아내는 짜증, 웃음과 아슬아슬한 곡예,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실수와 천진난만한 장난, 인간성과 맹목적인 추진, 터무니없는 일과 별난 사건들이 늘 공존했다고 세 저자는 설명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엮은 것은 사치 형제가 회사의 모토로 내건 무한한 가능성, 당돌하게 밀고 나가는 방식이며 이것이 실제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계약과 성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책은 광고업계의 아이콘이 된 사치 앤 사치의 흥망성쇠를 수많은 내부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상세히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도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다고 판단될 만큼 극히 무모하고, 특별한 사치 앤 사치만의 창의적인 경영 과정을 보여준다. 이례적인 사업 방식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경영서이기도 하지만, 분야와 상관없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기존의 규칙에서 벗어난 방향, 남들보다 대담한 방식이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낳는지 체감하게 해주는 유익한 지침서이기도 하다.

이미 작은 사무실을 낼 때부터 ‘세계 최대 광고회사를 만들자’는 야망을 걸고 사업을 시작한 사치 형제는 의외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한 쪽은 지극히 독창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영리하고 입담 좋은 비즈니스맨이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형제가 따로, 또 같이 야망을 현실로 만들어간 이야기는 소설에 맞먹을 만큼 흥미진진하다.

<목차>

서문, 머리말

1. 광고회사,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2. 환상과 실제
3. 채용의 높은 벽
4. 뛰어난 세일즈맨은 반드시 자기 오줌을 마신다
5. 그냥 하지 말고 먼저 하라
6. ‘그러더니... 고양이가 쥐에게 입을 맞추었네’
7. 새로운 사업만한 사업은 없다
8. 선교사의 자리
9. ‘있잖아 모리스, 가끔은 우리가 같은 배에서 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사치 앤 사치 연혁

<저자 소개>

사이먼 구드(Simon Goode)는 사치 앤 사치에서 30년 가까이 일했다. 사업개발 총괄로 시작하여 유럽, 중동, 아프리카 사업부 총관리를 맡았다.

리처드 마이어스(Richard Myers)는 1975년에 처음 사치 앤 사치에 입사하여 블랙 앤 데커, 브리티시 에어웨이 등 거대 고객의 광고를 유치했다.

닉 다크(Nick Darke)는 사치 앤 사치의 초창기 멤버 중 한 사람으로, 자회사 Siegel & Gale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은 후 사치 앤 사치 디자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글로스터셔에서 디자이너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목 : GREAT PSYCHOLOGIST AS PARENTS

가제 : 위대한 심리학자는 위대한 부모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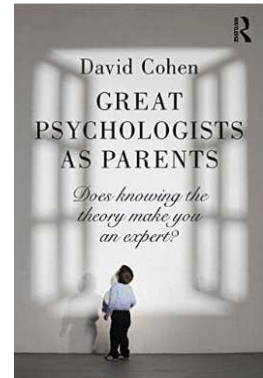
저자 : David Cohen

출판사: Routledge

발행일: 2016년 9월 29일

분량 : 158 페이지

장르 : 육아/심리



*** 아동발달, 아동심리학의 대가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웠을까? 예상을 뛰어 넘는 놀라운 진실**

*** 찰스 다윈, 피아제, 프로이드, 칼 융 등 위대한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심리분석가의 양육법**

아동발달 전문가들은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아이를 키우는 일이 유난히 고되다고 느껴질 때, 또는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아도 서투른 부모가 자식에게 저지른 놀라운 일들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는 선생님의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정말 반듯하고 말썽도 피우지 않을까? 심리학자이자 영화감독인 저자는 바로 그 의문에 대한 진실을 이 책에서 들려준다. 총 아홉 명의 심리분석, 아동발달 전문가들이 오랜 세월 연구를 거듭하고 사람들에게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대로 자신의 아이를 키웠는지, 이들이 가족이나 지인들과 직접 주고 받은 편지와 일기, 자서전, 전기, 인터뷰 자료 등을 대거 수집하고 총 정리하여 그 자녀들은 부모와 아무 갈등 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는지 추적해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20세기 최고의 아동심리학자로 꼽히는 피아제는 왜 자신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리분석을 실시했을까? 저명한 소아과의사 R.D 레잉의 아들은 어쩌다 경찰서 문턱을 드나들며 아버지를 수 차례 구해오는 신세가 되었을까? 대상관계이론으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멜라니 클레인의 딸은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왜 장례식에는 가지도 않고 되려 새빨간 구두를 신고 축하를 했을까? 저자는 심리학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찰스 다윈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 전문가로 꼽히는 사람들의 가정사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들에게 부여된 화려한 타이틀을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부모’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역할을 얼마나 훌륭하게 해냈는지 냉정하게 평가한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심리학자가 아니라도 지난 100년간 수천 명의 학자들이 아이가 어떻게 발달하고, 무엇이 아이들에게 불안감이나 자신감을 느끼게 만드는지 열정적으로 연구해 왔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들의 노력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 얻어야 할 점도 분명히 많고, 심리분석 전문가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폭넓은 지식과 통찰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 지식을 스스로 부모 역할을 할 때 얼마나 충분히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중이 제 머리 못 꺾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위대한 아동학자가 반드시 좋은 부모가 된 것만은 아니라는 가슴 아픈 진실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과도한 지식이 없느니만 못한 부작용을 낳은 경우도 허다하다.

저자는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는 물론, 대인관계에 관한 위대한 이론을 정립한 학자들이 가족과

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갔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가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론에 다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아동발달이나 교육학,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올바른 육아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책이다.

<목차>

1. 머리말
2. 찰스 다윈 – 최초의 아동 심리학자
3. 존 B. 왓슨 – 행동주의자의 비극
4. 지그문트 프로이트 – 비밀리에 딸을 분석하다
5. 칼 융 – 전형적인 멍청이(다소 자극적인 제목이긴 하다)
6. 멜라니 클라인과 그녀의 딸
7. 피아제 – 어머니의 영향, 그리고 심리분석
8. 벤자민 스폭 – 보수적 급진주의
9. 존 바울비 – 종절모를 즐겨 쓰던 남자
10. 버러스 스키너 – 딸을 우리에 가둔 사람
11. R.D 레잉 – 가정 폭력
12. 칼 로저스 –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13. 충분히 심리분석가가 될 만 하다?

<저자 소개>

데이비드 코헨(David Cohen)은 영국의 심리학자이자 영화 감독이다. 옥스퍼드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Royal College of Art)에서 영화를 전공했으며,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University of London)에서 개발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심리학자들의 심리학』, 『모든 것은 머릿속에』, 『심리학 테스트를 테스트한다』, 『놀이 개발』, 『잊혀진 수백만』, 『남자가 된다는 것』, 『관계의 보디 랭귀지』, 『상상력 개발』 등이 있다.

제목 : LISTENING TO A CONTINENT SING

가제 : 새들이 지저귀는 대륙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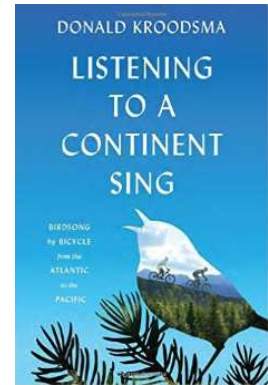
저자 : Donald Kroodsma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6년 5월 3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에세이/여행



- * “여행기와 과학적인 관찰 결과를 넘나드는 글을 통해, 조류의 음성 소통과 행동에서 저자가 새삼스레 느낀 자연의 경이로움을 독자들도 느낄 수 있게 한다.” - 「사이언스(**Science**)」, 헬렌 J. 바
- * “8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저자의 여행기이자, 그 길에서 찾아낸 새들의 노랫소리를 즉각 들어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체험 도서” - 「시카고 트리뷴」

35년이 넘게 조류학자로 살면서 특히 새가 음성으로 내는 온갖 소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전문가가, 어느 날 문득 미국의 광활한 대륙 곳곳에 사는 새들의 목소리를 직접 바로 옆에서 들어보아야겠다고 결심한다. 나이는 이미 현역석,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큰 일이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지만 그는 스물네 살 아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에 나선다. 8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 10주간 열 개 주를 가로지르며 대서양에서 태평양이 보이는 곳까지 페달을 밟은 시간은 두 부자에게 더없이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하루 160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느라 몸이 남아나지 않는 날들도 분명 있었지만, 동이 트기도 전에 들려주는 새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해가 질 무렵 하루를 마감하는 새들의 아름다운 화음은 평생 과학자로 살아온 저자가 그제야, 자연의 경이로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책에는 페이지마다 길 위에서 만난 다채로운 새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린 일러스트와 새 전문가가 소개하는 간략한 새의 특징과 함께, 저자와 아들이 귀를 기울인 새의 노랫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QR 코드가 제공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맑고 청량한 새소리가 흘러나와 숲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소리가 다 똑같이 들리지만, 이 책에 실린 381가지나 되는 서로 다른 노랫소리를 들으며 이 작은 생명체가 얼마나 제각기 개성이 있고, 목소리도 얼마나 다른지 감탄이 절로 나온다.

대부분 해가 다 진 밤까지, 때로는 한밤중에도 도로를 달린 저자와 아들 데이빗은 평화로운 시골길을 마음껏 음미하며 다정한 지역민들과 만나는 보너스까지 누렸다. 길 위에서 만난 또 다른 자전거 여행자들과도 특별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주된 목표는 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지만,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동안 남북전쟁이 남긴 흔적과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만나 경건한 마음을 느끼기도 한다. 50대를 훌쩍 넘긴 나이 탓에 저자의 발목이 붓고 빠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찾아왔지만 길 위에서 몸은 점점 더 튼튼하게 단련되어 가고, 새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곳

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곁에서 들으며 30년 넘는 조류 연구에서 깨닫지 못한 수많은 사실들을 배워간다. 똑같은 새도 사는 곳에 따라 목소리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 새들은 엄마가 아닌 아빠의 음성을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든 것, 그리고 가까이에서 사는 다른 새들의 노랫소리를 흉내내기도 한다는 재미 있는 사실들이 속속 발견된다. 절대 지루하지 않은 저자의 해설과 솔직 담백한 여행기,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새소리까지 더해져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QR코드로 새소리 듣는 법

머리말

1. 시작
2. 평화, 그리고 전쟁
3. 레모네이드
4. 블루리지 산맥의 새벽녘
5. 버지니아 고원
6. 아팔라치아
7. 분 카운티
8. 하늘을 달리다
9. 몸져눕다
10. 다시 길 위로
11. 쇼니족을 쓸어버린 새벽
12. 오자크

(이하 생략, 총 31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도널드 크루즈마(Donald Kroodsma)는 메사추세츠 대학교 조류학 교수로 새 노랫소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학자로 인정 받고 있다. 저서로는 『The Singing Life of Birds』, 『The Backyard Birdsong Guides』, 『Birdsong by the Seasons』 등이 있다.